판결·처분으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이혼 뒤 재산과 양육, 각자의 몫을 분명히 하다.

이혼·친권·양육 조건 정리

조정 결과

이혼과 자녀 양육 · 조정 성립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현재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다. 또한,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5. 6. 3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날의 월말까지 8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원고(반소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아래와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1) 사건본인이 7세가 될 때까지 :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0:00부터 18:00까지(당일면접)

2) 사건본인이 8세가 될 때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6:00부터 일요일 16:00까지(1박 2일)

3)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때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 매년 여름·겨울방학마다 각 5박 6일(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나. 방법 : 원고(반소피고)가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을 한 후 사건본인을 다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건본인이 3세가 될 때까지는 피고(반소원고)와 함께 면접교섭을 한다.

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와 협의하여 면접교섭의 시기, 횟수 및 방법을

01 이런 상황에서 해율을 찾았습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자녀 양육과 재산 문제까지 함께 풀어야 했던 사건입니다.

가족 사이의 분쟁은 소송이 끝난 뒤의 생활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눈앞의 갈등뿐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일, 재산과 생활비, 앞으로 감당할 책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02 의뢰인에게 중요한 문제

가족관계에 얽힌 요구를 한 덩어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마다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법원이 정한 조건은 어디까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부터 짚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혼인관계의 정리, 자녀에 관한 결정, 재산상 책임은 각 항목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혼 뒤 재산과 양육,

해율은 양육비와 재산 문제까지 조정했습니다.

- 이혼 뒤 자녀를 누가 키울지 합의되지 않는다면
-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를 함께 정해야 한다면
- 면접교섭을 언제 어떻게 할지 계속 다툰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03 해율과 함께 얻은 결과

법무법인 해율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이혼과 친권·양육자 지정, 월 양육비 지급, 각자 재산의 귀속과 추가 재산청구 포기를 정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조항은 지급할 내용뿐 아니라 서로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범위와 이행 조건까지 함께 정합니다. 이번 결과도 그 조건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읽어야 하며, 조정 성립만으로 모든 금전의 지급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04 당신의 상황과 나란히 보십시오

이 사건의 결과는 가족 문제를 법적 조건으로 구체화한 한 단계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닮은 상황에서 해율이 어떤 결과를 함께했는지 확인하고, 지금 지켜야 할 생활과 권리를 중심으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과 내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데서 시작하십시오. 해율은 이 사건에 함께한 경험과 실제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율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해율은 양육비와 재산 문제까지 조정했습니다.

- 각자 재산과 빚을 어디까지 나눌지 막막하다면
- 이혼한 뒤에도 연금이나 재산 청구가 남을까 걱정된다면
- 자녀의 생활을 지키면서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